

특별선교주일

세계성찬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예배를 위해 하박국 1:1-4 및 2:1-4를 기반으로 작성된 아래 설교 자료를 활용하세요. 본 설교 자료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함께 제공된 세계성찬주일 예배 자료,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자료 등과 아울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4

시 반다 에시나의 꿈은 짐바브웨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마련된 공간이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하박국 2:4).

우리처럼 하박국도 그가 목도했던 폭력과 파괴의 참담함에 마음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패한 정의로 인해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합니다. 그가 목격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세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하박국 2:4).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이 백성에게 선포할 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의 도움으로 에시나는 청각 및 언어 장애 교육 분야의 특수 교육 석사 학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수화로 통역하는 사역을 통해 “비전을 판에 새기고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 “비전을 판에 새기고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과 신실하고 옳은 관계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과 시반다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비전을 우리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신실한 의로 살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감리교회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연합감리교회들과 또한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____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의 사역이나 초교파적 관계를 위해 운영하는 사역의 예를 들어주세요)와 같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성찬주일인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를 봅니다. 아픔과 고통을 봅니다. 혹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지만,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변화를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들은 희망찬 미래를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반다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변화의 일꾼들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넓고 긴 식탁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불의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이야기는 불의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아올 때,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거룩한 성찬을 통해 그 비전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